

## 출 제 개 요 (인문·체능계)

2015학년도 경희대학교 인문·체능계 모의논술의 논제는 '공감'이다. 공감이 단순히 타인과 느낌을 공유하는 감정적 자질을 넘어, 인간이 타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공동체적 존재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이자, 한 사회가 민주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공동의 역량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논제 1>에서는 공감에 관한 심리학적 설명(인문학적 사유)과 생물학적 분석(자연과학적 통찰)을 병치해 공감이 인간의 본능에 의한 것이자,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 지속적으로 함양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도록 유도했다. <논제 2>에서는 공감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능력, 즉 감정 이입, 입장전환의 사고력, 상호 호혜적 태도, 타자의 고통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상력 등이 어떻게 발휘되는지를 실제 사례 및 시작품을 통해 분석하게 함으로써 공감의 양상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고와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유도했다. 공감의 작동이 인간의 본성과 개인의 기질, 상황의 논리 등에 의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타자와 세계를 위한/향한 실천이 동반될 때 온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성찰하는 데 이르면 최상의 답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시문 [가]에서 위니코트는 놀이를 건강한 인성 형성의 핵심으로 본다. 놀이가 지닌 타자성에 대한 즐겁고도 안전한 실험의 기능이 인성 형성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놀이는 사람들 사이의 실제 생활공간이 아닌 '잠재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실제 상황이라면 위협적일 수 있는 타자와의 만남을 기쁘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한다. 놀이를 통해 아이는 자신의 취약함과 놀람을 타자에 대한 호기심과 경이로 바꿀 수 있으며, 타자에 대한 두려움을 공감과 상호 호혜의 타자성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으로 승화할 수 있다. 타자를 자신이 바라는 대로 통제하려는 유아기의 욕망은 놀이를 통해 타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우정, 사랑, 건강한 사회·정치성 등의 고차원적인 삶의 태도로 발전할 수 있다. 공감은 온전한 자아 형성과 타자와의 행복한 사회적 관계 형성에 없어서는 안 될 능력으로, 공동체적 삶의 방식과 태도의 기반이 된다.

[나]에서 공감적 유대감을 결정하는 것은 두뇌에서 의식적 사고가 일어나는 부위인 대뇌신피질의 크기이다. 로빈 던바는 동물의 두뇌 중 대뇌신피질의 크기가 사회 집단의 크기, 구성원의 수,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정도, 복잡한 사회관계를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 등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영장류 가운데 인간이 가장 큰 사회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인간의 대뇌신피질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공감적 유대감은 사회적 동물이 해당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 능력으로, 이는 대뇌신피질의 크기와 상보적 비례 관계에 있다. 구성원들끼리 감정을 주고받고 상대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은 안정적인 사회 지속을 위한 공감적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이다.

[다]는 목숨이 위험한 재난의 상황에서 서로 모르는 타인들 사이에 일어난 거의 완벽한 차원의 공감을 다룬다. 순식간에 생사가 엇갈리는 재난은 인간의 살고자 하는 본능을 극대화하며, 타인보다 자신을 우선하는 이기심 역시 극대화한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지진과 화재의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발휘한 것은 자기중심적 자아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을 친구로 생각하고 친구를 위해 헌신하는 사회적 자아였다. 타자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처럼 존중하고, 타자에 대한 감정이입 및 입장전환의 사고를 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경지였다.

[라]는 적을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는 전쟁의 극한 상황에서 일어난, 상호성에 기반한 공감을 묘사한다. 이 놀라운 상호성을 가능하게 한 요인은 상대를 죽여야 하는 불행한 운명에 처한 공동의 입장에 대한 통찰이다. 영국군과 독일군은 서로 죽여야 하는 적대적인 상호성을, 일정 시간과 장소에서 서로 공격하지 않는 우호적인 상호성으로 바꿈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나누는 균형점에 도달한다. 죽음을 상호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상호 교환하는 이러한 공감의 방식은 제한된 형태로나마 전쟁의 원칙을 무력화하면서, 인간이 존중하고 나누어야 할 궁극의 대상인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일깨운다.

[마]는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공동의 이익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직접 접촉한 적이 없는 낯선 타자와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공감을 그린다. 시 속의 '나'는 어느 관공서를 지나다 그 안에서 혼자 울고 있는 '서기'를 목격하고 고통스러워한다. '나'의 공감에는 타자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는 감정이입, 입장전환의 사고, 타자가 처한 어려움을 헤아리는 상상력 등이 결합되어 있다. 삶의 출구가 막힌 '서기'에 대한 깊은 공감은 "희고 거대한 서류뭉치로 변해가"는 "움직이지 못하는 건물들"에서 보듯 사물에 대한 공감으로까지 나아간다. 이는 타자를 주체가 원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이해하는 전유와 구별된다.

#### <제시문 출처>

- [가] 마사 누스바움, 우석영 역, 『공부를 넘어 교육으로』, 궁리, 2011.  
 [나] 제레미 리프킨, 이경남 역, 『공감의 시대』, 민음사, 2010.  
 [다] 레베카 솔닛, 정해영 역, 『이 폐허를 응시하라』, 펜타그램, 2012.  
 [라] 로버트 액설로드, 이경식 역, 『협력의 진화』, 시스테마, 2009.  
 [마] 기형도, 「기억할 만한 지나침」, 『입 속의 검은 잎』, 문학과지성사, 1989.  
 [바] 자체 집필.